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2016년 5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6.(목) 오후 17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5. 26.(목) 17:00	담당부서	정책기획팀
담당과장	장금영 팀장 (044-203-4610)	담 당 자	오재철 서기관 (044-203-4611)

경제자유구역 2015년 성과평가, 부산진해 1위, 인천 2위 차지

- 제8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, 경제자유구역 2015년 성과평가 결과 확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6.25일 8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(위원장: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)를 개최하여 「경제자유구역 2015년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(안)」 등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□ 경자구역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, 전년도(2015년)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*은 구조조정과 개발노력에 힘입어 60.1%를 보여, 전년(2014년) 대비 5.7%p 상승(2004~2014년간 평균 개발률: 4.9%)하였고,

* 개발률(%) = (개발완료+개발진행 면적) / 경자구역 전체면적 × 100,
('14년) 54.4% (182.7/335.8 km^2), ('15년) 60.1% (196.3/326.8 km^2)

*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개발계획 미수립지 구조조정(인천, 부산진해 10.83km^2등)과 미개발 지구 중 일부 지구(7개)의 개발진행 등으로 개발률 개선

○ '15년에 국내기업 투자금액은 4.19조원으로 전년(2.91조원) 대비 44% 증가한 반면,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(신고 기준)는 14.6억불로 전년(18.2억불) 대비 감소하여,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.0%를 차지하였다.

○ 개발 진척과 투자 확대에 따라, '15년 경제자유구역내 고용인원은 전년대비 6.2천명이 증가하여, 총 9.6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□ 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, 대구·경북, 황해, 충북, 동해안권 등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역별 평가에서는 부산·진해가 1위, 인천이 2위,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.

○ 5개 세부 영역별로는 투자유치 분야는 부산·진해가 1위, 개발사업 추진 분야는 인천이 1위, 사업·조직운영,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 분야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1위를 차지하였다.

□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발굴된 모범사례는 향후 모든 구역이 경험을 공유하여 성과를 확산하고, 투자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은 '바이오단지'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가동, 제2공장 준공 및 제3공장 착공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허브로 조성

- 입주기업의 주요 민원사항이었던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고자, '지식정보산업단지'에 저렴한 근로자 기숙사를 2015년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되면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

○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은 '신항배후지'에 68개 업체(국내 2, 외투 66)가 입주하여 58개 업체 가동 및 10개 업체 물류센터 건설 중이며, 2개의 일본 물류기업 투자(2천2백만달러)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 기대

○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'동·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'에 6개사 신규입주 및 4개사 외투유치 등 국내외 물류기업 투자(국내 277억원, 중국외투 3천만달러) 유치로 농수산 가공·수출 활성화 기대

○ 대구·경북경제자유구역은 '영천 첨단부품소재지구'에 2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 투자 유치(4천5백만불)하여 신규 고용창출 기대

- 특히 중국기업 투자유치시 유치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, 양해각서(MOU) 체결후 2주만에 공장 착공토록 지원

○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포승지구(평택BIX)에 9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(MOU) 4건 체결

○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대(對)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전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유치로 이란과의 경제교류 선점 및 한국-이란 간 우호적 관계 발전 계기 마련

* 페르시아 전통의학 기술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천연물의약 개발을 위한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투자 협약('15. 4월)

○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 유치 노력 결과, 캐나다 투자전문회사(부동산개발, 천연자연개발)를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유치

* 망상지구 개발은 국제적 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후 콘텐츠 개발과 판매, 운영을 하는 복합개발 사례

□ 산업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역청의 투자유치 지원예산 차등지원,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지속적인 개발 진척과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단위지구(91개)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위지구(9개)에 대해서는 차년도의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및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단위지구 지정 해제 등 개발 촉진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* 최하위 등급 지구(9개) : (인천)무의 힐링리조트, (부산진해)문화, 보배, 송정, (광양만권)광양복합업무단지, 웰빙카운티단지, 덕천에코시티, (대구경북)영천하이테크, (동해안권)북평

붙임 경제자유구역 2015년도의 개발 및 투자유치 모범사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오재철 서기관(☎ 044-203-46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경제자유구역 2015년도의 개발·투자·기업입주 모범사례**

□ 인천

① (바이오단지 투자유치)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1년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, '12. 7월에 제1공장 준공, '15년에 제1공장 정상가동, 제2공장 준공('15.2월) 및 제3공장 착공('15. 12월)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허브로 조성 (총사업비 1조6,000억원 투자 및 1,300여명 고용창출)

* 총사업비 : 2단계 7,500억원, 3단계 8,500억원
* 고용창출 : 1, 2단계 1,300여명 (3단계 완공시 700여명 추가)

►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동아쏘시오그룹(DM BIO) 등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입주하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고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 구축

② (인천 지식정보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건설) ㈜라이크홈은 미국 호텔 운영사인 KEA Limited Partnership(이하 KEA)과 IFEZ 내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숙사 제공

- 약 1,200실 규모의 IFEZ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착공('15.2.27)하였으며, FDI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함('15.1.23 기준)

► 2016년 말 준공예정인 라이크홈 기숙사는 해외투자사인 KEA와의 제휴를 통해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

- 입주기업의 많은 민원사항이었던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고,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과 주변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

  * 1인실 45만원, 2인실 50만원(유사평형 기존 오피스텔 대비 저렴)
  * 부대시설 휘트니스, 세탁실, 휴게실 등 설치 및 침대, TV, 냉장고 등 생활편의 시설 제공
  * 계약체결 :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바이오에피스, 엠코 테크놀로지, 캠시스, 이너트론 등 1,170호실 계약 체결

□ 부산·진해

③ (두동지구)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던 지구를 다자간 협력체계를 적용한 거버넌스형 환지개발방식(환지+보상)을 도입하여 집단민원 해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('15.6월)

► (두동지구) '18년까지 물류 및 정주인구를 수용하는 주거복합 첨단항만물류도시 조성
- 15개 물류기업 유치(358,660㎡), 공동주택 등 8,007세대 2만 2천여명 유입
- 산업경제 유발효과 3조 5천억원 및 신규 일자리 5,000명 창출효과 기대
* '16년 8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

④ (신항배후지) 신항만 기능 지원 첨단복합 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지구로, 68개 업체(국내 2, 외투 66)가 입주하여 58개 업체 가동 및 10개 업체 물류센터 건설 중

► (한국일본통운) 일본의 대표 물류기업(세계 4위)으로 '15년 12백만불 투자
-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단순 하역, 보관 물류업을 넘어 고부가가치(조립, 가공 및 분류, 라벨링 등) 창출물류사업 모델을 추구하여 신규 고용창출 기대

► (나이가이트랜스라인) 일본 무선박운송주선업계 1위로서, '15년 10백만불 투자
-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다양한 부가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고용창출 기대

⑤ (명지지구) 상업, 업무, 문화, 주거 등의 다양한 테마와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, 특화된 형태의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비지니스 중심 도시로 도약

► (명지지구) 1만 2천명 상주인구, 호텔 및 국제회의장 등 국제비지니스 도시 조성
- 외국인 투자유치 28백만불 FDI 신고('15.9.24.) → 향후 1억불 투자(예상)
- 개발이익 지역 환원(1백억원)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종사자수 : ('14) 283명 → ('15) 316명
- 향후 직접고용 1,700명 및 일자리 3,000여개 창출 기대

□ 광양만권

⑥ (세풍일반산업단지) 공사본격 착공('15.10월) 및 토지보상 협의 매수 93% 달성('15.12월) 등 개발 정상 추진 중

► (세풍일반산업단지) 시·도별 지역전략산업에 바이오화학사업 선정으로 기능성화학소재와 바이오소재 패키징 기업 유치를 위한 세풍산단 추진동력 확보
-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R&D센터 예비타당성 통과(국비 56억 확보)
- 바이오소재패키징 4개사와 MOA체결, 외국인기업 2개사와 MOU체결

⑦ (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)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기업 중점유치지역으로 동측배후단지는 '15년에 제일로직스 등 6개사 신규입주 및 3개사 외투유치, 서측은 외국인 투자유치 3,000만 달러 FDI 신고 등록 (중국 요녕 푸통코리아유한공사 '15.12.28)

► (동측배후단지) ㈜제일로지스, ㈜아이젠스타, ㈜콤코로직스, 주식회사오요트, 온누리버섯영농조합, 엔에치엘(주) 등 창고보관업, 금속원료 재생업 기업 입주 '15년 국내외 6개사, 277억원 투자유치

► (서측배후단지) 동남아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수입·가공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코자 배후부지에 냉장·냉동 창고 건립 및 운영 계획으로 한·중 FTA 시너지 창출 및 농수산 가공·수출 활성화 기대
- 전남도, 광양시, GFEZ, 푸통코리아와 투자협약 체결('15.12.24)

⑧ (율촌제1산단) 1차금속, 기계장비산업 등 기업 중점유치지역으로 현대제철, 케이에스광학, GSDK 등 9개사 신규 국내기업 투자유치(3,080억원)

► (현대제철(주)) 제철, 제강, 철근, 압연제품 등을 생산, '15년 1,714억원 투자
► (케이에스광학(주)) 특수우레탄 소재 등을 제조, '15년 160억원 투자
► ((주)GSDK) 비철금속 제련 등을 생산, '15년 556억원 투자

□ 대구·경북

⑨ (수성의료지구)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과의 보상협의('15.12월, 토지보상완료 및 상업용지 등 분양)가 원만히 해결 및 '15년말에 33% 공사가 진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개발 추진 중

- SW융합기술지원센터('15.7월) 착공 및 미국 조지타운대학통합의료대학원 유치 추진 등 수성의료지구 조기 활성화 도모

► SW융합기술지원센터
  - 글로벌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SW기업 지원기관 건립
  - 부지 4,292㎡, 건축연면적 9,305㎡ (지하1층, 지상6층)
  - '15. 7 ~ '16. 12, 사업비 218억원

► 미국 조지타운대 통합의료대학원 한국 분교 설립 추진
  -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통합의료대학원 대구 캠퍼스를 수성의료지구에 설립하여 양·한방 통합의료 연구의 메카로 육성
  - MOU 체결('15. 7. 8./조지타운대), 통합의료대학원 분교 설립 사업계획수립 자문('15.11~12월)

⑩ (영천 첨단부품소재지구) '15년 2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여 4,500만불 신규투자 유치

- 특히 중국합작기업인 ㈜아다의 경우 유치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지원 TF팀을 구성, MOU체결후 2주만에 공장 착공토록 지원

► ㈜아다 ('15.7.13 MOU체결, '15.7월말 착공)
  - 중국합작, 자동차 차체부품 생산, 부지 21,587㎡, 투자금액 2,400만불

► 퍼시픽엑스오토社 & 한호이노베이션('15.8.19 MOU체결)
  - 미국합작, 기어·샤프트 등 자동차부품 생산, 부지 19,187㎡, 투자금액 2,100만불

□ 황해

⑪ (포승지구) 사유지보상 완료('15.7월), 부지조성공사 착공('15.10월)하여 정상적으로 개발 추진 중이며, '15.12월 J社 등 4개 기업 9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진행 중

※ 투자유치 MOU체결('15.12월) : 4개 기업(1.32km^2, 280여명 고용 규모)

□ 충북

⑫ (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)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前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유치로 이란과의 경제교류 선점 및 한국-이란 간 우호적 관계 발전 계기 마련

* 페르시아 전통의학 기술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천연물의약 개발을 위한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등 향후 10년간 20억 달러 투자 협약('15. 4.27.)

⑬ (충북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) 아시아 각국 MRO 관련 기관·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MRO리그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권 MRO리그 창설 주도하여 아시아권 MRO산업 공동협력 기반 구축

* MRO 관련 조직 간 국제협력, 인력 공동육성, 정보공유·기술협력, 비용절감에 대한 협력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('15.12. 8.)

  - 아시아 최대 MRO 업체인 MASAE(말레이시아), GAMECO(중국), DASI(싱가폴), SEABURY(홍콩), TAMECO(타이완), AET(일본) 등

□ 동해안권

⑭ (망상지구 개발) 투자자 유치 활동 결과, 캐나다 투자전문회사인 던디 코퍼레이션을 유치하여, 국내법인 설립(던디360동해개발주식회사)을 통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

* 망상지구는 국제적 명품 관광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후 콘텐츠 개발과 판매, 운영을 하는 복합개발 사례
  - '16. 5월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여「망상리조트 시티」개발 추진 동력 확보